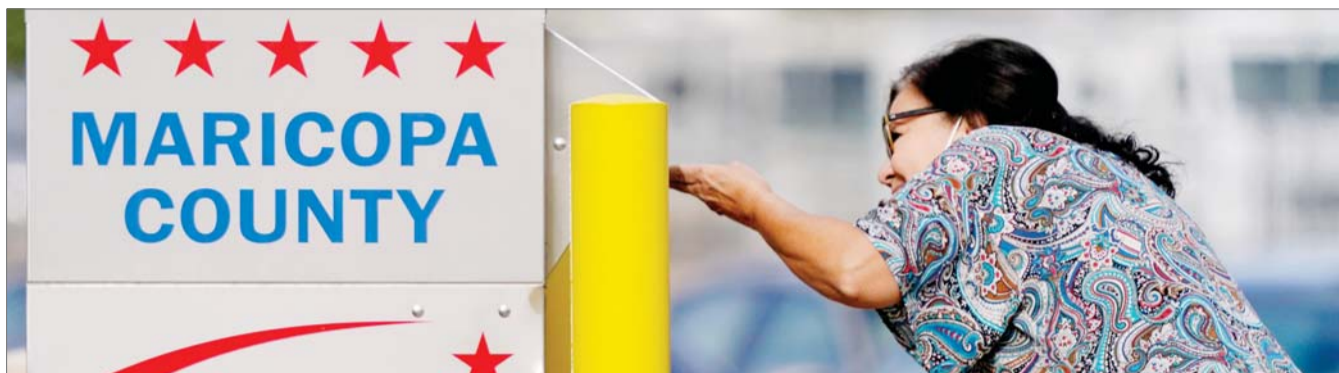


공화당 승리 땀 바이든 정책 제동... 자동차株 다시 별 들까

美 중간선거, 증시 향방은

각종 여론조사 공화당 우세 점쳐
바이든 IRA법안 속도조절 불가피
자동차 섹터 긍정적 효과 기대감



미국 중간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7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메사에서 한 여성이 투표용지를 선관위 공식 투표함에 넣고 있다. /뉴시스

8일(현지시간) 판가름나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증시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종 예상에서 공화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총 100석의 상원 의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부,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를 새로 뽑는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간선거가 마무리되는 것만으로도 향후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역사

적으로 집권당에 상관없이 중간선거 이후 증시는 부양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며 "3개월 내 대략적으로 10~15% 내외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으로 부양 정책으로 급진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상승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930년부터 2018년까지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의 S&P500 경로를 백테스트해보면 해당 연도 4분기부터 그 다음연도 1, 2분기까지 수익률이 좋았다"라며 "4분기의 평균 수익률은 5.5%, 다음해 1분기와 2분기 평균수익률은 각각 5.7%, 4.5%"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 베팅업체 등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서 공화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차

지고 있지만 공화당이 이 중 적어도 한 개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해온 IRA 법안 등 정책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IRA법안으로 타격을 입었던 자동차 섹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선 연구원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IRA 수정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나라에게는 기회 요인"이라

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공통적으로 에너지 자립과 국가 안보에 목소리를 내면서 국방, 조선, 기계, 반도체 및 일부 2차 전지 섹터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전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업종에 대해 그는 "9월 이후 성과가 부진하며, IRA 법안 발표 이후 외국인과 기관 수급 개선강도가 약화됐다"라며 "기관 수급에 민감도가 높는데, 관련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다면 수급 디커플링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화당이 양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RA, 증세, 부채한도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며 "국내 증시에서도 자동차, 이차전지 등 친환경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3분기 깜짝실적' DL그룹, 3高시대 위기 관리능력 주목

매출 139% 영업익 127% 증가 예상
크레이트 인수로 미래 경쟁력 확보
빠른 수익성 개선, 전반적 실적 견인



미 오키오 주 벨프레(Belpre)에 위치한 크레이트社 SBC 생산 공장. /DL그룹

최근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내 기업들을 향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라는 3중고가 더욱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 경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자 주요 기업들도 실적 하락은 물론 유동성 확보에 차질을 빚으며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다만 DL그룹의 경우 수익성 기반의 보수적인 사업 추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등 차별화한 위기 관리 능력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 '신의 한 수' 된 크레이트 인수... DL(주), 이익 차별화 실현

DL(주)는 지난달 28일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

4898억원, 영업이익 1696억원이 예상된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9%, 127%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매출은 2022년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5% 늘어난 3조 8427억원을 달성했다. 크레이트 인수 완료(3월 15일) 이전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누적 매출

은 4조원이 넘어간다.

증권투자업계에서는 DL(주)의 크레이트 인수를 '신의 한 수'로 평가하고 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 인수한 크레이트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개선되면서 DL(주)의 핵심 자회사로 등극, 회사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견인

했다는 평가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DL(주)의 경우 NCC 부문인 DL케미칼의 감익에도 불구하고 전 사업부문에서 증익이 이뤄지며 실적 개선을 이뤘다"면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DL이앤씨, PF 부실 우려 '제로'... 흔들림 없는 재무안전성 입증

DL그룹의 건설사업을 맡고 있는 DL이앤씨는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심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속에서도 재무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올 6월 말 기준 국내 21개 건설사의 PF우발채무가 18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만 이번 분석대상에서 DL이앤씨는 제외됐다. 한기평은 "DL이앤씨는 리스크가 높지 않은 정비사업을 빼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사실상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

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는 시장 침체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시행사뿐만 아니라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PF 우발채무가 사실상 없는 DL이앤씨의 경우 충분한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레고랜드발(發) PF 부실 우려 사태를 완전히 비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DL이앤씨의 안정적인 사업 구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재무안전성을 보유한 만큼 현재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DL이앤씨가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레고랜드 이슈로 심화된 부동산 금융시장 약화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경영기조에 따라 DL이앤씨는 PF 우발부채 규모가 절대적으로 낮다"면서 "3분기 말 기준 순현금 1조20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안정성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kdh@

이자 부담에 매물 적체... 서울 전셋값 10년4개월來 최대 낙폭

아파트 전세가격 21주 연속 내림세
하락폭도 전주보다 0.11%p 확대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대출이자 부담 증가와 전세매물 적체 심화 등으로 21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며 10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43%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32%)보다 0.11%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6월 13일(-0.01%) 하락 전환한 뒤 21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낙폭은 지난 2012년 6월 11일(-0.23%)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크다.

동북권에서는 강북구(-0.52%→-0.

63%)가 미아동 대단지, 성북구(-0.50%→-0.54%)는 정릉·돈암·길음동, 동대문구(-0.23%→-0.47%)는 이문·장안동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서북권에서는 은평구(-0.42%→-0.50%)가 녹번·응암동 대단지, 서남권은 양천구(-0.31%→-0.38%)가 목·신정·신월동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동남권에서는 송파구(-0.50%→-1.04%)가 가락·신천·방이동, 강동구(-0.47%→-0.60%)는 고덕·암사·명일·강일동, 서초구(-0.26%→-0.36%)는 반포·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미아

동부센트레빌'은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5억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 7월 전세가격(4억8000만원) 대비 2000만원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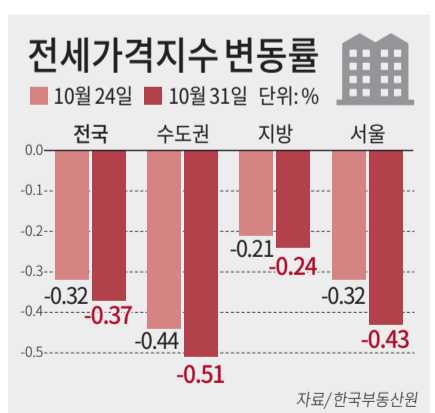
성북구 길음동에 위치한 '길음뉴타운 4단지'는 지난 9월 전용면적 59㎡가 4억 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지만, 2개월 만에 전세가격(4억원)이 5000만원 떨어졌다.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레미안 베라힐즈'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의 전세가격이 5억5000만원으로 손바뀜됐다. 지난달 전세가격인 6억5000만원에서 1억원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엘스'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11억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달 전세가격인 13억원과 비교하면 하

락폭은 15.4%(2억원)에 달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임차인의 반전세·월세계약 전환이 지속되고 전세매물 적체는 심화되고 있다"면서 "서울지역 전반에서 하락 거래와 매물 가격 하향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전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월세를 낀 주택 임대차 누적 거래량은 19만3266건으로 전체 임대



차 거래의 48.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7만 335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5만6733건) 대비 24%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세 대출이자 부담으로 반전세·월세계약이 증가할수록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환기자